

국가비행시험장 건립...고흥 드론산업 탄력

국토부 2020년까지 398억 투입...유·무인기 개발·인증 郡,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인력 양성 체계 개발 등 박차

고흥의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드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고흥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운영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키로 발표하면서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398억원을 들여 고흥군에 오는 2020년까지 유·무인 항공기급 개발 및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건립키로 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활주로(1200×45m)와 비행시험통제센터, 항행장비 등

을 갖추게 된다. 앞서 고흥군은 ▲국가비행종합시험인프라 개발 구축(109억원)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454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7년 제 4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지난달 통과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에 고흥의 국가종합비행시험장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이 추진 중인 관련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흥군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맞춰 지난 7월 '국정과제 발굴 보

고흥'을 갖고 오는 2020년까지 438억원을 투입해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일대에 4690㎡ 부지 규모로 무인기 산업기반시설을 집적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정부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고흥군은 또 무인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무인기 인증·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미래 무인기 인력양성 교육훈련 체계 개발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고흥은 정부가 발표한 '드론산업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전남 무인기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기획 연구'라는 중간보고서에서 "전남은 고흥만 간척지의 항공센터를 포함한 국내 최고조건의 비행시험 공역을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인력양성, 시험 인프라 확충 등 무인기 산업을 견인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현재 704억원 규모인 드론 시장을 4조4000억원으로 성장시키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3000대 상용화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20일 분정문화박물관 강당에서 '제 23차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내 드론산업 정책동향을 비롯해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현황,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기업체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곡성 호도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34개 오지마을 주민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호도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민들. <곡성군 제공>

곡성 '100원 택시' 3년만에 8만명 이용

곡성의 100원 택시가 지역민들의 든든한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호도택시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1월 말까지 3만9545차례 운행, 7만9331명을 실어나른 것으로 집계됐다. 호도택시는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교통복지 서비스로, 그동안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34개 오지마을을 주민 1476명의 발 역할을 도맡았다. 군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뒤 '호도

택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상마을을 확정, 호도택시를 운행해왔다. 이용자들은 오지마을에서 생활권역(곡성, 석곡, 옥과)의 병원·시장 등 방문하는 데에 주로 호도택시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호도택시가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전통시장과 병·의원 활성화, 택시 운송사업자 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곡성군 내년예산 3440억 군의회 예산안 최종 확정

곡성군은 24일 최근 3440억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군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기차마을 입장료를 2000원 인상하고 인상분을 심정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상가에서 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8억원을 편성했다. 곡성군은 또 농산물 포장재 지원(2억 2000만원) 등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비를 전년보다 47억여원 증액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24억원), 6차 산업화 지구 육성(11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 예산을 편성, 농업인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31억원), 로즈카카오 체험관 건립(25억원), 기차 플랫폼 조성(10억원) 등을 편성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메주 익어가게 고택 운주루 구례군 토지면 고택 운주루(雲舟樓)에서 9대 종부 이길순 할머니가 최근 전통 방식으로 만든 메주를 겨울 햇살에 말리기 위해 매달고 있다. 운주루는 삼수부사와 낙안군수를 역임했던 류이주(柳雨青)가 1776년(영조 52년)에 건립한 조선시대 양반가의 주택으로, 흥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누구나 쌀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인능해(他人能解·누구나 열 수 있다)'라고 쓰여진 뒤주가 있다. <구례군 제공>

보성군 벌교갯벌 해양테마공원 조성 순조

갈대탐방로 내년 3월 완공
에코센터·전망대 등 곧 착공
보성군이 벌교갯벌과 갈대군락지를 배경으로 하는 해양테마공원(조감도) 조성 공을 들고 있다. 24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여차만 일대 갈대 탐방로와 탐방데크 조성 공사를 추진 중이다.

보성군은 내년 3월 2870m에 이르는 갈대탐방로가 조성되면 국내 최초 세계람사르 협약 보전습지로 등록된 벌교 갯벌과 갈대군락지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은 또 갈대탐방로를 비롯한 에코센터(600㎡), 휴게쉼터(400㎡), 전망대와 갯벌 탐방데크 등을 포함한 해양테마공원을 2020년까지 마무리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보성군은 여차만 일대에 9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조성중인 해양테마관광 시설과 인근 중도방죽, 태백산맥 테마파크를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와함께 벌교 갯벌을 갯벌 형태에 따라 '자연만곡', '바람만곡', '소리만곡'으로 구분, 인문학과 연계한 스토리를 입혀 환경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벌교갯벌과 갈대군락지를 연계,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벌교=김윤성기자 kim0686@

곡성 성인문해교육 83명 눈물의 졸업식

입학생 절반 3년 과정 이수
"한 자 한 자 글 쓰고 읽는 법을 가르쳐 주니 고맙습니다."
최근 곡성군 문화센터에서 열린 성인문해교육 졸업식장은 늦은 나이에 글을 배워 환한 세상을 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83명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이날 3년간 초등 성인문해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3년 전 시작 당시만 해도 163명이 글을 배우겠다고 교실을 찾았다. 가난과 전쟁 등으로 배움 기회를 접하지 못해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한 나이 든 어

르신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생을 등진 동기생과 질병에 몸져누운 동기생들이 늘어나면서 졸업식에는 절반가량인 83명의 어르신만 참석할 수 있게 됐다. 83명의 어르신은 지난 3년간의 고생과 보람이 떠올라 눈물과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않고 이날의 기쁨을 누렸다. 함께하지 못한 학우들도 떠올랐지만 마음만큼은 첫 글씨를 또박또박 써내려가던 수업 첫날처럼 모두 함께였다. 곡성군은 지난 10년간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해 입면 흑석리 학습반의 박남순, 고맹순 어르신 등 초등 검정고시 합격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영화 보고 책 읽고...곡성 옥과공공도서관 독서교실

곡성군이 '2018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 겨울방학을 맞아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를 감상하고 다양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 옥과공공도서관은 다음달 23일부터 4일간 '영화로 만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겨울 독서

교실'을 연다. 도서관측은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통해 감성과 상상력 등을 간접 경험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는 옥과공공도서관(061-360-8476)으로 하면된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접 646㎡(전) 국제양공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